공존

세계인과 소통하는 공감매거진

Korea Immigration Service Magazine

2023
SUMMER
제64호

V-Log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 브이로그

Focus
제16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Zoom in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KOREA IMMIGRATION SERVICE

방글라데시 출신 **소하기 & 샤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

정부 혁신

Editor's Letter

공존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강렬한 태양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청명한 바다와 시원한 계곡을 벗 삼아 잠깐의 여유를 즐기는 행복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세계 유례없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산업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3.5만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숙련기능인력 선발시 근무기간 요건 완화 및 기업별 외국인 고용인원 확대 등 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에는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이 짧다는 농어가 현장의 목소리에 부응하여 외국인 계절근로(E-8) 체류기간 상한을 5개월에서 8개월로 상향하였으며,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재외동포(F-4)의 취업제한도 완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내 체류 유학생에 대하여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 및 분야를 확대하는 한편, 비전문취업(E-9) 등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국내 유학활동 기회를 부여하는 등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과 지역사회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정책도 시행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본부는 유연한 비자정책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지원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에 오랜기간 기여해 온 검증된 외국인 숙련인력과 우수인재가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5월 19일에는 '공감과 존중, 하나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세계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첫 대규모 행사로 주한 각국 대사 등 650여 명의 내·외국인이 참석한 가운에 다양한 행사를 통해 화합과 상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본부는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인구감소와 인력난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국민과 재한외국인의 목소리에 세심히 귀 기울여 모든 사회구성원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존 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장 이 재 유

Dear readers,

Time sure does fly like an arrow as we find ourselves already in the second half the year. As the season of good sunshine and excitement is with us again, let all your worries and stress go away this summer and enjoy every minute of it. I also wish you to have a great summer vacation and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highlight recent improvements to our policies.

First of all, we have boosted this year's quota for E-7-4 skilled workers to 35,000 to address the chronic labour shortages our industries are experiencing, which is attributed to ageing and one of the world's lowest birth rates. We have additionally made significant improvements to other existing regulations. The minimum employment period requirement for foreign workers was eased, and for companies, the cap on foreign workers for businesses was raised.

Secondly, the maximum period of stay set for seasonal foreign workers with an E-8 visa was raised from five months to eight months. This decision was made to accommodate repeated claims made by their employers in farming and fishery villages that five months is far from being enough to address the labour shortages in these villages. As an additional measure to add vitality to the regional economy, we have eased employment restrictions on Overseas Ethnic Koreans with an F-4 visa.

Thirdly, we introduced a measure to allow more part-time work for international students and allow more sectors in which they can be employed. As an effort to respond to the difficulties experienced by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nd regional communities aggravated by the dwindling size of learning age population, we introduced a measure to open up opportunities for non-professional foreign workers with an E-9 visa to pursue studies at our universities.

The abovementioned measures are fine examples of our efforts to extend support to inject vitality to our economy by employing flexible visa policies. We are also in the front line to lay a founadation to encourage talented individuals and foreign skilled workers, who have proven their ability throughout an extensive period of time in Korea, to settle here as their adopted home.

Meanwhile, we have hosted the Together Day event on 19 May under the theme of "With Empathy and Respect, We Stand Together." It was the first large-scale in-person Together Day event to be held since the end of the Pandemic, with more than 650 guests of various nationalities, including Korean nationals. The event provided an opportunity to reiterate the great value of co-existence and harmony through various types of events.

We,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will be committed to responding to population decline and labour shortages by collaborating with relevant government organisations. We will also not spare efforts to let the voices of both Korean nationals and non-nationals be heard to promote an atmosphere, where all members of our society can co-exist.

Last but not least, I wish the best of health and luck.

Thank you.

Commissioner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
Jaeyoo 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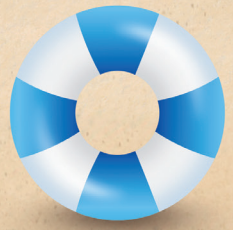
! 공감

'느낌표(!)'는 감탄을 나타내는 문장 부호입니다.
어떤 것을 힘주어 강조할 때,
감탄할 때, 놀랄 때
'!'가 있어 우리는
글에서 감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공감은 감정을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이해하며
공감하는 세상.
모두가 행복한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닐까요?

이 여름, 공감으로 하나되는
행복한 세상을 꿈꾸어 봅니다.



CONTENTS

2023. SUMMER / Vol. 64

공존 세계인과 소통하는 공감매거진
Korea Immigration Service Magazine

우리

특집:
'공감'으로 만드는 행복

06
Interview
사랑과 배려로 실천하는 이웃 사랑
방글라데시 출신 소하기&샤라

10
Story
조선업 현장 찾아가
외국인 근로자 적응 돕는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www.immigration.go.kr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

대한민국 비자포털
www.visa.go.kr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immigration.kr

유튜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카카오 채널
http://pf.kakao.com/_gxbpPT

편집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
발행일 2023년 7월
발행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전화번호 02-2110-4019
기획·편집·디자인 이루다플래닛(주) 1566-7699

www.immigration.go.kr
웹진으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06

여기

모두가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KIS

14
Focus
공감과 존중, 하나되는 대한민국
제16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18
Issue
유학생 유치 확대·국내 정착 유도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

20
Zoom in
민원인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는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24
V-Log
빠르고 정확한 사전출국심사, 도심공항터미널에서!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서울역출장소
최지연 주무관의 하루

28
KIS News

함께

함께 만드는
'공감' 이야기

30
Memoirs
한국어에 대한 열정으로 이루어낸
내 인생의 꿈과 희망
김지윤

32
Proverb
전통에서 유래된 재미있는 관용어

34
Culture
대중문화 속 다양성과의 만남

36
KIS-tube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SNS 소식

37
Letter for KIS
행복한 하루를 만드는 칭찬의 힘!

38
Event
공존 공감 & 퀴즈 타임

HENRI MATISSE
HENRI MATISSE
HENRI MATISSE

지난해 10월 경기도 포천에서 열린 '제20회 포천시민의 날' 축제에 방글라데시 전통의상을 입은 여인이 무대 위로 호명됐다. 주인공은 외국인 주민 대표 자격으로 초대받은 아크터 소하기 씨(이하 소하기). 그녀가 포천 지역의 유명인사가 되어 이날 무대에 오르기까지, 이야기는 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랑과 배려로 실천하는 이웃 사랑

방글라데시 출신 **소하기 & 샤라**

Akter Sohagi

봉사활동으로 지역 유명인사가 되다

소하기가 한국에 온 것은 2010년, 남편 이브라힘 씨를 따라서였다. 그녀는 양가 어른들의 소개로 90년대 초반부터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던 남편과 만나 결혼 후 한국 땅을 처음 밟았다. 당시 한국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몰랐던 그녀는 20대 초반 어린 나이에 타지에서 두 아이를 낳아 키우며 적잖은 외로움과 싸우고 있었다.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문자메시지가 와도 이해하지 못해 답답해하던 차에 우연히 재한외국인의 언어 교육과 생활 등을 지원하는 다문화센터의 존재를 알게 됐다. 한국에서 적응하고 생활하려면 한국어부터 할 줄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열심히 공부했고, 불과 1년 만에 한국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게 됐다. 붙임성 있는 성격도 빠른 언어 습득에 도움이 됐다. 이웃 주민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다가온 소하기를 기특해하며 매일 한국어를 가르쳐줬던 것이다.

아이들이 등교한 후 여유 시간이 생기자 소하기는 그간 익힌 한국어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포천시를 관할하는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찾아가 자원봉사를 지원한 그녀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이민자 자원봉사자로 활약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어와 한국어뿐만 아니라 파키스탄, 네팔어까지 여러 언어에 능통한 소하기의 존재는 다양한 국적의 민원인이 방문하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큰 힘이 된다. 다친 사람을 병원에 데리고 가서 통역을 하거나 출입국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수수료를 선뜻 내주는 등 남의 일을 내 일처럼 앞장서서 돕기 시작하자 직접 소하기를 찾는 민원인도 많아졌다.

"다른 집 아이가 아프다고 해 병원에 데리고 가느라 새벽 1시에 귀가한 적도 있고, 얼마 전에는 갓난아기를 데리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갔다가 갑자기 통역 요청이 들어와서 4시간 동안 통역을 한 적도 있어요."

봉사는 힘든 일 아닌 기쁘고 재미있는 일

소하기의 이웃 사랑 면모가 지역에서 크게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방글라데시인 가족을 도왔다는 기사가 보도되면서부터다. 포천에 사는 부부가 난임 끝에 인공수정에 성공해 지난해 네 쌍둥이를 낳았는데 경제적 어려움과 소통 문제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었다. 소하기는 동포인 이들 부부가 난임병원에 다닐 때부터 임신 후 출산하기까지 2년간 모든 과정을 함께 하며 물심양면으로 도왔고, 시 보건소를 통해 유축기와 물티슈 지원도 받아줬다. 소하기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은 네 쌍둥이는 건강하게 자라나 최근 첫돌을 맞이했다.

소하기 가족 역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그때의 경험은 봉사활동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계기가 됐다.

"예전에 아기 분유 살 돈이 없는데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서 힘들었거든요. 제가 직접 경험해보니 사람들이 어떤 걸 필요로 하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알게 됐어요. 저의 도움으로 누군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해지면 저도 행복해요. 그래서 봉사는 힘든 게 아니라 기쁘고 재미있는 일이에요."

소하기는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보건소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백신접종 통역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쳤다. 포천시청에서는 오랜 시간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봉사한 공로를 인정해 그녀를 '포천시민의 날' 행사에 외국인 주민 대표로 초청하기도 했다. 이제는 동네에서 그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어, 길을 가다 보면 다가와 반갑게 인사하는 사람들도 많다.

소하기의 다음 목표는 보험회사에 취직하는 것이다. 병원에 동행해 통역하는 봉사를 많이 하다 보니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무 중 부상을 입어도 소통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보상도 받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들을 정식으로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산업현장에서 근로하는 외국인들은 다쳐도 말도 못하고 힘들어하는 일이 많은데 제가 할 수 있는 일들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가족·이웃과의 행복한 공존

최근 소하기는 두 가지 경사를 맞이했다. 하나는 셋째 아이를 낳은 것이고, 또 하나는 두 번의 도전 끝에 귀화에 성공한 것이다. 임신한 몸으로 공부에 매진해 지난해 겨울 귀화 시험에 합격하자 '나도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절로 났다. 앞서 귀화한 남편에 이어 자녀들, 소하기까지 이제 다섯 가족 모두가 한국인이다.

단순히 국적만 바뀐 것이 아니라 소하기는 이미 스스로가 한국인이라고 느낀다. 처음에는 냄새도 맡기 힘들어했던 한국 음식을 이제는 일주일에 5일 이상 먹는다. 초등학교 3학년인 둘째 딸 샤라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도 된장국, 미역국이다. 요즘은 청소년들의 인기 메뉴인 마라탕에 빠져서, 유학 중인 언니가 출국하기 전에는 매일 함께 마라탕만 시켜 먹었다며 웃었다.

엄마를 닮아 친구들에게 인기 만점인 샤라의 장래희망은 패션 디자이너다. 옷에 관심이 많고 만들기도 좋아해서 멋진 디자이너가 되기를 꿈꾼다. 현재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첫째 딸은 향후 법조계에서 일하고 싶어 한다.

소하기는 출산한 지 3개월 만인 요즘 다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조금 더 쉬어야 한다고 말리는 사람도 있지만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하는 많은 이들이 "방글라데시 선생님 안 계세요?"라며 그녀를 찾는다는 사실을 알아서다. 어렸을 때부터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이웃의 절박한 사정을 들으면 외면하지 못했다는 그녀의 얼굴에 인자한 미소가 넘쳐 흘렀다. 소하기는 지금처럼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서 가족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소박하지만 누구보다도 멋진 내일을 꿈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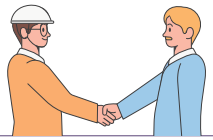
"앞으로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멋진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를 잡고,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더 바랄 게 없어요."

**저의 도움으로 누군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해지면
저도 행복해요.**

: 정리 편집실

조선업 현장 찾아가 외국인 근로자 적응 돕는다

우수한 조선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조선업이 최근 전례 없는 수출 호황을 맞았음에도 거듭 심화되는 인력난으로 신음하고 있다. 법무부는 비자 요건 개선 등 조선업의 외국인력 도입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을 펼친 데 이어 지난 5월부터 조선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업무 환경과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산업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조선업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 적응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조선업은 2023년 1분기 기준 세계 선박시장의 40%(수주액 기준 94억 달러)로 세계 1위 수주 실적을 달성할 만큼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조선업 종사자 수는 2014년 20만 3천여 명에서 2022년 9만 5천여 명[1]으로 감소해 지속적인 인력난 심화로 부침을 겪고 있다. 법무부와 산업부는 조선업의 구인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특정활동(E-7) 비자 발급 지침」을 개정하고, 조선업 관련 E-7 비자 요건을 대폭 개선해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 1월에는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하여 조선업에 투입될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심사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 조선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실무능력검정 없이 E-7 비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 '찾아가는 외국인 유학생 조선업 취업설명회'를 개최해 조선업체와 외국인 유학생의 구인·구직이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렇듯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다각적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법무부는 조선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산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한국사회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하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국내 체류 외국인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 자립하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사회통합교육으로, 전국 341개 운영기관(2023년 3월 기준)에서 교육 실시

※ 이수자에게 체류허가 가점 부여, 영주권·귀화 기본소양 요건 면제 등 혜택 부여

[1] 조선·해양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2022 조선·해양산업 인력현황 보고서>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 도입 배경

지난 2월부터 조선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입국 후 업무의 어려움과 언어 장벽, 문화 차이 등으로 인해 직무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이 원활한 의사소통과 한국사회 이해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해소하고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산업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기존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외국인이 지정된 운영기관에 출석해 교육을 받는 방식이지만 조선업의 경우 사업장이 바닷가에 위치해 교육기관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많고, 잔업과 교대근무 등으로 인해 근무시간대가 일정하지 않아 정해진 교육시간에 맞춰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다.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조선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들이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는 평일 저녁, 주말에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사가 조선업체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이다. 한국어 능력을 단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한국어 기초부터 한국생활에 필요한 문화나 제도에 관한 교육 등이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

대상자

- 조선업에 종사하는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소지자로서 기초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외국인
  (※ 외국인 등록 후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참여 가능)
- 4개 업체 총 489명 참여(2023년 6월 기준)

교육 내용

- 사회통합프로그램 기초단계(15시간) ~ 초급 1단계(100시간)

조선업 현장에서 본 사회통합프로그램

현재 국내 조선 4사(HD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삼성중공업·한화오션)에서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인원은 총 489명(E-7 452명/E-9 37명)이다. 이 가운데 울산에 위치한 현대중공업에서는 81명의 인원을 4개반으로 나눠 평일 야간과 주말을 활용해 주 10시간씩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1단계 수업에서는 한국어를 거의 모르는 외국인이 자신 있게 대화할 수 있도록 말하기 교육을 집중적으로 가르친다. 현재 1차 운영 중인데 2차 교육에 벌써 334명이 신청했을 만큼 인기가 높다.

현대중공업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하는 김병수 책임매니저는 일과가 끝난 후 피곤한 저녁 시간대 진행되는 수업임에도 참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열의가 대단하다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 소통이 중요한데, 이번 교육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직장과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외국인력의 취업과 거주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해 이들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MOJ to offer on-site integration programme for foreigners working at shipyar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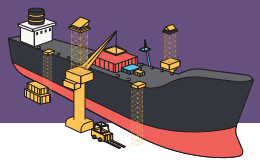
Learn more about the on-site social integration programme

Who are eligible to attend?

- The door is open for workers employed in the shipbuilding sector with a Foreign National of Special Ability (E-7) visa or a Non-professional Employment (E-9) visa, who need basic language training after completing their registration as a foreign resident.
  As of June 2023, a total of 489 workers from four shipbuilding firms took part in this programme.

What programmes are offered?

- Beginner level (15 hours) and Elementary level 1 (100 hours) will be offered.



Why was this programme introduced?

A visible increase in foreign workers employed in the shipbuilding sector since February this year is resulting in workers experiencing challenges due to performing complicated duties and language/cultural issues. We – the Ministry of Justice – became aware of this problem and decided to offer on-site social integration programmes to assist workers to resolve potential conflicts and successfully adjust to Korean society by facilitating communications and their understanding of Korean life.

Taking part in social integration programmes was an arduous feat for such workers as they had to travel long distance to reach their nearest learning centre since shipyards are located adjacent to the ocean. As working irregular hours, including overtime work and night shifts, is common in the shipbuilding sector, this adds another layer of difficulty for workers to take part in pre-scheduled programmes.

The newly introduced on-site integration programme frees up workers from these issues. Social integration instructors pay visits to shipyards on weekday evenings or weekends for the sake of workers' convenience. Workers can enjoy well-designed Korean language programmes aimed at gradually improving their language proficiency and other programmes geared towards understanding Korean culture and useful policies.

공감과 존중, 하나되는 대한민국

제16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지난 5월 19일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제16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이 진행됐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예년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화합과 웃음이 가득했던 기념식 현장으로 떠나본다.

화려하게 포문 연 기념식

세계인의 날(5월 20일)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7년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지난 2008년 첫 테이프를 끊은 세계인의 날 기념식은 올해 16회째를 맞았다. 최근 몇 년 동안 세계인의 날 기념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최소 인원만 참석하는 등 축소된 규모로 진행됐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올해 기념식에는 7개국 주한 외교사절을 비롯한 650여 명의 내·외국인이 참석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환호를 보냈다.

문소리 아나운서와 벨기에 출신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 씨가 사회를 맡은 이번 기념식은 '공감과 존중, 하나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화려하게 포문을 열었다. 오프닝 공연을 장식한 아름드리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은 각국 전통의상을 입고 무대에 올라 경쾌한 합창으로 청중을 미소 짓게 했다.

이어진 기념식은 주제 영상 상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기념사, 주한 외교사절 축사, 각국 이민청장의 축하 영상, 유공자 포상, 축하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활동 중인 재한외국인들의 사연을 담은 주제

영상은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우리 경제 성장에 필요한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면서 "미래에는 외국인들의 자발적인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외국인정책을 추진하는 나라가 세계를 선도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The 16th Together Day

이민자를 위해 힘쓴 유공자 포상

세계인의 날 기념식의 하이라이트인 유공자 포상은 외국인의 정착을 지원하고 이민자 사회통합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게 수여됐다.

대통령 표창은 중앙기독유치원 설립자 김추리 여사와 한미영 동대문구 가족센터장,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가 받았다. 한국·미국 복수국적자인 김추리 여사는 결혼이민자 1세대로서 1959년 입국 후 44년간 국내 유아교육 발전과 소외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정의 교육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 올해의 이민자상을 수상했다.

대통령 표창 개인 부문 수상자 한미영 센터장은 이민자 정착지원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친 공적을 인정받았고,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는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적응 등 사회통합과 정착지원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 단체 부문에서 수상했다.

국무총리 표창은 임정민 국제가정문화원장, 한건수 강원대학교 교수,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 등 개인 4명, 단체 3팀이 수상했다. 법무부 장관 표창은 사회통합 정책 추진에 기여한 이올가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이민자 네트워크 회장, 아프간 특별기여자 지역사회 정착지원을 위해 노력한 신상운 현대중공업 책임매니저 등 개인 5명과 단체 1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제 성장에 필요한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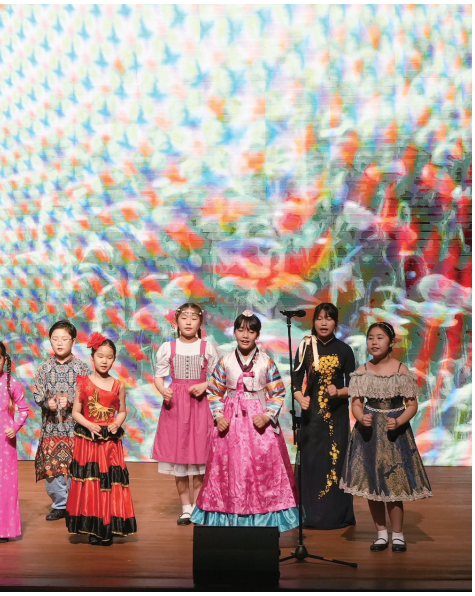
공감과 존중으로 하나된 현장

이어진 세 팀의 축하 공연은 기념식의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궜다. 가장 먼저 아이돌 그룹 블랙스완이 무대에 올랐다. 블랙스완은 K팝 최초로 전원 외국 출신 멤버로 구성된 다국적 걸그룹으로, 시원한 가창력과 댄스를 선보여 환호를 이끌어냈다. 두 번째로 무대에 오른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은 칼 같은 군무와 격파 등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여 객석을 사로잡았다.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은 1974년 창단해 전 세계를 순회하며 태권도 보급, 시범 등으로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마지막 무대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 해피스타트 합창단이 장식했다. 수원청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이민자 네트워크 회원, 관내 외국인 유학생, 수원청 직원으로 구성된 이들 합창단이 '아름다운 나라'를 부를 때는 영상 속에 흐르는 대한민국의 사계절 풍경과 힘차게 휘날리는 태극기가 어우러져 감동을 선사했다. 관객석을 가득 채운 참석자들 또한 출신 국가의 국기와 태극기를 함께 흔들며 화답해 '하나되는 대한민국'이라는 기념식의 주제를 다시금 되새겨보게 했다.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도 세계인의 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청에서는 사진공모전과 이민자 중창 경연대회를, 안산사무소에서는 Together Day 어울림축제를 개최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춘천사무소에서도 '온 세계가 하나되어 Happy Smile' 행사를 개최해 세계인의 날의 의미를 되새겼다.

기념식 현장에서 출신국과 상관없이 한데 어울려 즐겁게 담소를 나누는 참석자들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다. 화합과 웃음으로 마무리된 세계인의 날 기념식이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유의미하게 남아있기를 바라본다.



유학생 유치 확대· 국내 정착 유도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

국내에 체류하는 유학생 수가 지난 10년간 약 8만 명에서 약 20만 명으로 크게 늘어난 가운데, 법무부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와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7월 3일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였다.

01 유학 비자 발급 시 필요한 재정능력 심사 기준을 완화한다.

재정능력 입증 기준 학위과정 유학생 2천만 원 / 어학연수생 1천만 원

※ 단,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은 학위과정 유학생 1천 6백만 원 / 어학연수생 8백만 원으로 추가 완화
→ 기준 변경으로 유학생의 부담이 지방대학은 약 730만 원(어학연수과정은 약 500만 원), 수도권대학은 약 600만 원(어학연수과정은 약 300만 원) 경감 예상

02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학 활동 병행이 가능해진다.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근로자들이 직업 전문성 개발을 통해 숙련기능인력(E-7-4)* 자격을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장기간 단순노무분야에 종사한 외국인의 소득·경력·학력·한국어능력 등을 점수제로 평가하여 장기 취업이 가능한 비자로 변경을 허용하는 제도

03 유학생 한국어 능력 입증 방식을 다양화한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외에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세종학당 한국어 기준을 추가해 한국어능력 증빙이 필요한 유학생의 선택권 확대 및 사회통합도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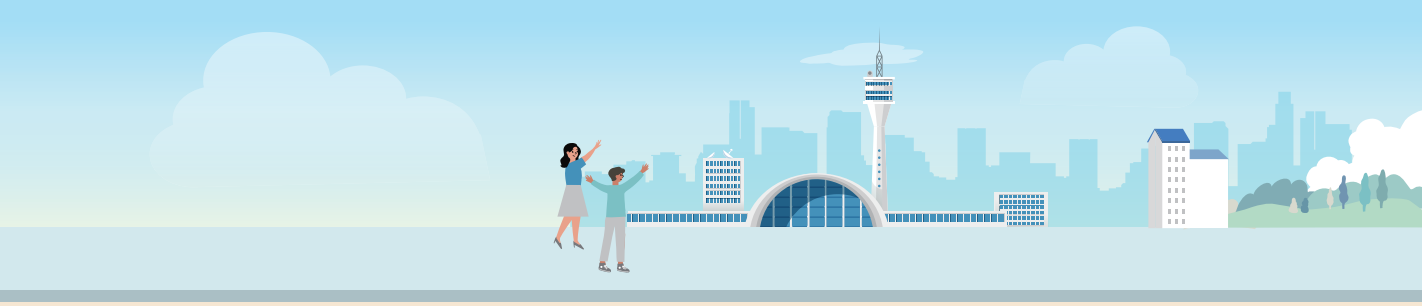
04 시간제취업 제도를 개선해 유학생의 진로탐색 기회를 확대한다.

전문학사·학사과정 시간제취업 허용시간 주당 20→25시간으로 확대

※ 학업성적·한국어능력이 우수한 경우 주당 5시간 추가 근무 허용

· 방학 중 전문 분야 인턴 활동 허용
· 의무 규정된 현장실습, 교육부 고시에 따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경우 시간제 취업 허가를 면제하여 내국인 학생과 동일한 실습 기회 부여

법무부는 관계부처 및 대학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우수 유학생 유치를 지원하면서도, 유학 제도가 불법 체류·불법 취업의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적정한 체류 관리를 통한 유학생의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We strive for better policies to attract more international students and their settlement in Korea

After witnessing international students skyrocket from 80,000 to 200,000 during the last decade, we have introduced better policies on 3 July to attract foreign talents and encourage international students to settle

01 We have relaxed financial ability demonstration requirements for students.

- The requirements are relaxed to KRW 20m for degree programme students and KRW 10m for language school students attending institutions in the Seoul Capital Area. This is the result of our efforts to relax financial requirements, thereby asking for KRW 6m and KRW 3m less funds respectively depending on the type of programme.
- The requirements are additionally relaxed to KRW 16m for degree programme students and KRW 8m for language school students attending institutions in the non-Seoul Capital Area. This is the result of our efforts to relax financial requirements, thereby asking for KRW 7.3m and KRW 5m less funds respectively depending on the type of programme.

02 We now allow foreign workers to pursue studies.

Those working here with either an E-9 or an E-10 visa are encouraged to polish their professionalism through studies and eventually meet requirements to obtain an E-7-4 visa* for skilled individuals.

*This type of visa is issued to allow long-term employment after screening long-term foreign workers not employed in professional sectors in line with a points-based system by considering their experience and income, Korean language proficiency and educational levels.

03 We now accept more options as proof of Korean language proficiency.

Aside from TOPIK, we now accept our Ministry's KIIP (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me) certificates and language learning experience at King Sejong Institutes to offer more options for international students and facilitate their integ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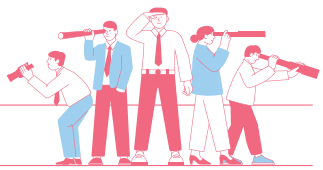
04 We now allow more part-time hours to encourage international students to explore career opportunities.

- The previous part-time work limit of 20 hours/wk is relaxed to allow up to 25 hours/wk for degree/associate degree programme students. Five additional hours per week will be granted if they can demonstrate excellent academic achievements or Korean language proficiency.
- They are also allowed to take part in internships in professional fields during vacation. Obtaining a permission for part-time work will be waivered, thereby offering internship opportunities identical to their Korean peers when international students take part in mandatory field training or Cooperative Education (Co-op) arranged in line with announcements made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We, the Ministry of Justice, are committed to continuing our cooperation with relevant organisations and ministries to attract talented international students. At the same time, we plan to invest efforts to ensure international students do not abuse their status to seek illegal employment and residence, eventually establishing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 between international students and the country in the end.

민원인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는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섬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호남 최대 도시인 광주광역시를 둘러싸고 있다.
풍요로운 빛고을 광주에서 전라남도 서남부 권역의 출입국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만나본다.



광주·전남권역의 출입국 업무를 아우르는 곳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이하 광주사무소)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일원(나주시 및 11개 군)의 등록외국인 약 65,000명(2023년 5월 기준, 거소신고자 포함)을 대상으로 출입국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총 52명의 직원들이 체류 관련 민원 처리, 사증 발급, 국적, 단속, 출입국사범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 밖에도 전라남·북도를 관할하는 난민 거점사무소로서 난민업무를 전담할 뿐만 아니라, 제주 예멘 난민(인도적 체류허가 포함)의 안정적인 전남권역 정착과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의 국내 정착·취업 지원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들을 상대로 인도적인 지원도 펼쳤다.

광주사무소는 목포와 무안공항 두 곳에 각각 출장소를 두고 있다. 무안공항출장소는 공항에 출입국하는 내·외국인 승객들을 대상으로 출입국심사를 전담하고, 목포출장소의 경우 목포시를 비롯해 완도군, 신안군 등 전남권역의 도서 지역을 모두 관할하고 있다. 목포출장소는 도서벽지, 산업단지, 농어촌지역 등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의 출장소 방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온라인 민원(전자사증, 전자민원) 신청을 적극 홍보하여 민원 편의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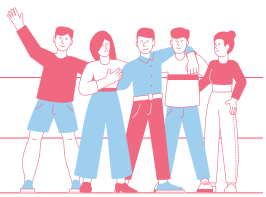
광주사무소만의 소통 친화적인 매력

광주 광산구에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온 고려인 재외동포 집단 거주지가 소재한다. 이곳에 있는 사단법인 고려인마을은 2015년 법무부의 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어 고려인 자녀 대상 어린이집 운영과 광주시 위탁 지역아동센터를 운영 중이며,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도 지정되어 있다.

이곳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현재 340여 명의 우크라이나 국적 동포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광주사무소 직원들이 이들을 돕기 위해 십시일반으로 기부금을 모아 지역 내 동포들을 돕는 따뜻한 마음을 보여줬다.

지난 5월 진행된 제16회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에서는 지역의 국제 문화교류 차원을 넘어 광주시민이 되는 국적 취득자의 국적증서 수여식과 기념식을 동시에 진행해 약 1만 명의 참석자들에게 법무부 외국인 사회통합정책의 추진성과와 계획을 홍보하는 장을 마련했다. 또한 관내 대학교와 외국인지원기관, 커뮤니티의 부스 행사장을 마련해 다양한 국가의 행사 참여자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외국인 커뮤니티 활성화를 지원하기도 했다.

광주사무소는 방문하는 모든 이들이 쾌적하게 사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연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모두가 함께 어울린다는 의미로 명명한 연못 '어울못'과 사무소 청사를 따라 조성한 둘레길, 호두나무, 감나무 등 10종 이상의 녹음이 어우러진 광주사무소의 아름다운 풍경에는 민원인이 편안한 마음으로 찾아오기를 바라는 직원들의 마음이 담겨있다.



전남 서남부를 지키는 든든한 수문장

광주사무소는 부드럽고 친화적인 직장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코로나19 이후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에 맞춰 개최된 2021년 광주사무소 배드민턴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체육대회를 개최해 전 직급이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직원 간의 화목한 분위기가 민원인들에게도 전해져, 광주사무소 직원들은 매사 친절과 배려로 민원인들을 응대한다. 특히 관리과 직원들은 매일 복잡하고 바쁜 상황에서도 민원인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친절, 신속, 정확한 안내에 기반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양한 사연을 지닌 민원인들이 찾아오는 광주사무소에서 최근 화제가 된 일은 배구 특기생으로 체류하던 몽골 출신 염어르헝 여자배구선수의 귀화다. 염어르헝 선수는 배구 국가대표 염혜선 선수의 부모에게 입양되어 광주사무소에 귀화 신청 후 국적을 취득했다. 지난해 광주가 연고지인 AI 페퍼스 배구단에 지명된 그녀는 현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코트 위를 누비고 있다. 광주사무소 직원들은 "염어르헝 선수가 대한민국에서 역량과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기를 바란다"고 한마음으로 전했다.

광주사무소는 향후 전라남도 서남부를 아우르는 국제 관광지로서 발돋움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이후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는 무안공항의 출입국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 신속한 출입국서비스로 내·외국인을 맞이하고자 한다. 이처럼 광주사무소는 서남부 국제 관광지의 관문을 안전하게 지키며 친절과 배려로 민원인들을 맞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광주사무소는 향후 전라남도 서남부를 아우르는 국제 관광지로서 발돋움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다.

Mini INTERVIEW

"친화적인 출입국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호남권역의 중심"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곽범현 관리과장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광주광역시와 전남 일대 관할 지역 내의 체류외국인 관리 및 사회통합, 사증발급인증서 발급, 출입국사범 조사 및 보호, 외국인 동향조사, 국적 및 난민심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 모두 전문성과 적극적인 태도로 출입국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사무소 직원들이 추천하는 인근 핫플레이스

음미

분위기 좋고 맛도 좋은 브런치 카페입니다. 파스타부터 샐러드까지 다양한 메뉴가 있는데 특히 파밥을 꼭 드셔보세요. 운천저수지 근처에 있어 식사 후 가볍게 산책하기도 좋습니다.

- 이보라(관리과) -

무등산 국립공원

광주 명소로 빠질 수 없는 곳입니다. 누구나 부담 없이 아름다운 경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20가지 이상의 사찰음식을 맛볼 수 있는 무등산 근처 사찰음식 전문점 '수자타'도 꼭 방문해보세요.

- 민해월(관리과) -

어쩌다 토종닭

닭 요리를 찾으신다면 광주사무소 근처에 있는 이 식당을 추천합니다. 백숙 요리와 닭볶음탕 2가지 메뉴가 있는데 둘 다 맛이 훌륭합니다. 양도 푸짐하고 반찬도 정갈하게 나옵니다.

- 박인순(조사과) -

소안도

허름한 외관에 외진 곳에 위치해 숨은 맛집으로 알려진 횟집인데요. 화정동 먹자골목 안에 있는 음식점으로, 인당 4만 원에 환상적인 손맛의 주방 특선(오마카세)을 즐길 수 있어요!

- 김지수(조사과) -

V-LO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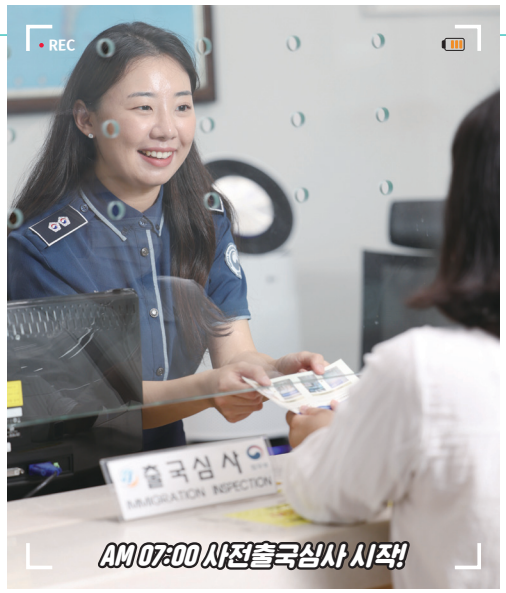
빠르고 정확한 사전출국심사, 도심공항터미널에서!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서울역출장소 최지연 주무관의 하루

도심공항터미널은 출국 승객이 공항을 이용할 때 필요한 탑승수속과 사전출국심사를 마치고 인천공항까지 갈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출국 당일 원하는 시간(단, 탑승 3시간 30분 이전)에 방문해 사전 수속과 출국심사가 가능하며, 무거운 수화물을 미리 부치고 공항까지 빠르고 편하게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에서 사전출국심사와 국민 자동출입국심사등록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최지연 주무관을 만나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서울역출장소의 하루를 따라가보자.

AM 06:50 서울역으로 출근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에 위치한 서울역출장소는 회사에 출근하기 전 탑승수속과 사전출국심사를 마치려는 직장인을 비롯한 내·외국인 승객들이 많이 찾아와 아침 일찍부터 바쁘게 돌아갑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12시간 근무 체제로 돌아가는 서울역출장소로 함께 가보실까요?



AM 07:00 사전출국심사 시작!

도심공항터미널은 출국 당일 원하는 시간에 탑승수속 후 수화물 없이 공항에 갈 수 있다는 점, 인천공항의 도심공항 이용객 전용 출국통로를 이용할 수 있어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승객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완화 이후 요즘은 일 평균 1천여 명이 사전출국심사를 통해 출국합니다.

24 Hours

AM 09:00 전일 일일상황 보고 및 회의

저희 서울역출장소는 직원 5명으로 이뤄진 작은 출장소입니다. 인원이 적은 만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자랑하며, 선배들께서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많이 배려해주셔서 저도 빨리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은 승객들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더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항상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답니다.

AM 10:00 바쁘다 바빠, 사전출국심사

출입국심사관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친절'이 아닐까 합니다. 승객들은 여행의 시작과 끝에서 출입국심사관을 만나는 만큼 좋은 인상을 남겨주기 위해 아무리 바빠도 항상 친절한 태도를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승객과 민원인을 만날 때면 소소한 보람을 느낍니다.

PM 12:00 점심식사 및 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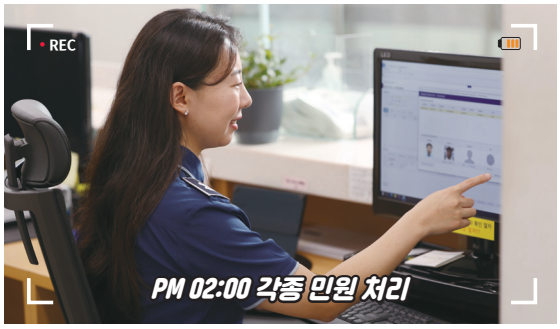
심사대를 비울 수 없어 점심식사는 직원들이 1시간씩 교대로 다녀옵니다. 구내 직원식당에서 먹기도 하고 도시락을 싸 와 휴게실에서 먹을 때도 있는데요. 서울역출장소는 지하 2층에 있기 때문에 식사 후에는 서울역 근처를 산책하며 햇빛을 즐기곤 합니다.

V-log

"신속하고 정확한 출국심사를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PM 02:00 각종 민원 처리

오후에는 사전출국심사를 위해 찾아오는 승객 수가 조금 줄어들어 국민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국가 간 자동등록, 출국 금·정지 조회 등 민원을 처리합니다. 시간대별로 업무가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업무를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PM 06:30 통계 작성 및 업무 마무리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일일 통계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루 업무가 마무리됩니다. 저도 최근 도심공항터미널에서 사전출국심사를 받고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생각보다 더 신속하고 편리했습니다. 이후 업무를 하면서 서울역출장소를 처음 방문하는 분들에게 사전출국 절차를 설명해야 할 때 제가 직접 체험한 경험은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PM 07:00 12시간 만에 퇴근 완료!

오후 7시가 되면 사전출국심사를 비롯한 모든 업무가 종료됩니다. 업무 특성상 출근 시간이 빠르고 주말과 연휴가 바쁘다는 점은 조금 힘들 때도 있지만, 항상 승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출국심사를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최지연 주무관

"출입국 업무의 이해도와 전문성을 쌓겠습니다"

현재 삼성동 도심공항 출장소 업무종료에 따라 사전출국심사 이용자와 한미자동출입국 관련 업무가 많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더욱더 신속하고 정확한 출국심사 및 친절한 출입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며 출입국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의 폭을 넓혀가고 싶습니다.

KIS News

Korea
Immigration Service
Magazine

2023 SUMMER Vol.64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

법무부는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해 최장 8개월간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파종기·수확기 등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어촌의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2015년부터 운영해 온 '외국인 계절근로제'는 농어촌의 합법적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고 농어업 분야 계절적 구인난 해소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체류기간이 5개월에 불과해 현장 및 지자체에서 체류기간 확대를 건의함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해 최장 8개월간 취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신속하게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지난해 배정된 상반기 계절근로자(26,788명, 124개 지자체)에 더해 5월 24일 추가로 12,869명을 배정(107개 지자체)했으며, 이를 통해 농어촌 구인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인난 해소 위해 재외동포 취업범위 확대

법무부는 지난 5월 1일부터 인력이 부족한 산업 분야와 인구감소지역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F-4)의 음식점업 및 숙박업 분야 6개 직종의 취업을 허용하고, 인구감소지역 중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지역(총 28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재외동포(F-4)에 대해서는 단순노무직을 포함해 53개 직종의 취업을 허용하는 등 재외동포(F-4)의 취업 범위를 확대했다.

* 대구광역시(남구), 부산광역시(서구·동구·영도구), 경기도(가평군·연천군), 경상남도(고성군), 경상북도(고령군·성주군·영주시·영천시·의성군), 전라남도(강진군·고흥군·보성군·영암군·장흥군·해남군), 전라북도(고창군·김제시·남원시·부안군·순창군·정읍시), 충청남도(보령시·예산군), 충청북도(제천시·단양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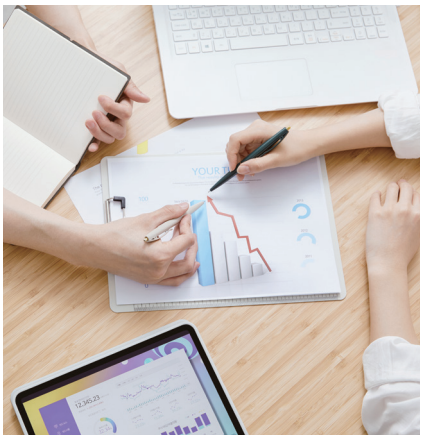
이번 조치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산업 분야와 인구감소지역의 빈 일자리 해소 및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 시행

법무부는 지난 6월 14일부터 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주소지에 외국인이 전입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를 시행했다.

그동안은 특정 주소지에 전입 신고한 외국인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해당 건물에 임차인으로서의 선순위 대항력을 가진 외국인의 전입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었고 이로 인해 주택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했을 경우 예상치 못한 권리행사에 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제부터는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교부를 통해 특정 주소지에 주택임대차 대항력이 있는 외국인의 유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 신청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개선

법무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6월 29일부터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의 투자 기준금액이 일반 투자이민제도는 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고액 투자이민제도는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은퇴 투자이민제도는 투자 기준금액이 3억 원으로 현저히 낮고, 만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향후 발생할 복지 비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 폐지하기로 했다.

*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 펀드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 또는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일반투자이민, 은퇴투자이민, 고액투자이민이 있다.

전자여행허가(K-ETA) 이용자 편의성 개선

법무부는 무사증입국 가능 국가 국적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 필요한 전자여행허가(K-ETA)*의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7월 3일부터 전자여행허가의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청소년(17세 이하)과 고령자(65세 이상)는 사전에 K-ETA를 받지 않더라도 입국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허용, 수수료 부과)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동안 전자여행허가 다국어 지원 서비스를 한국어·영어 2개 언어에서 6개 언어(태국어·중국어(번체)·스페인어·프랑스어·말레이어)를 추가하고, 단체신청 가능 인원도 30명에서 50명으로 늘리는 등 전자여행허가 이용자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킨 바 있다.

* 무사증입국 가능 국가(112개)의 국적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 현지 출발 전에 전자여행허가(K-ETA)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하고 허가를 받는 제도 (유효기간 내에서 국내입국 횟수 제한 없이 사용 가능)

한국어에 대한 열정으로 이루어낸 내 인생의 꿈과 희망

글 김지윤

2003년 어느 날 같은 반 친구가 중학생이던 나에게 VCD를 건네주면서 "엄청 재미있어. 너도 한번 봐"라고 했다. 집에 와서 아무 생각 없이 틀어봤는데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멋있을 수가 있지? 완전 신세계인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보는 내내 감탄이 절로 나왔다. 그 VCD는 바로 H.O.T의 콘서트 영상이었다.

2003년! 딱 20년 전의 이야기다. 그 당시 베트남에는 한류는커녕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지도상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집에 컴퓨터를 소유한 사람도 많지 않았다. 그래서 그 VCD 하나를 반복해서 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많이 보다 보니 노래 가사와 H.O.T 멤버들이 중간중간 팬들과 나눈 이야기 내용이 궁금해졌다. 그래서 용돈을 모아 큰마음 먹고 서점에 가서 책 한 권을 장만하고 한국어를 독학하기 시작했다.

주변에 한국어로 되어 있는 것이라면 물건의 포장지조차 공부 자료로 삼아 소중히 수집했다. 그러나 독학이라는 게 쉽지 않았다.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이게 맞는지 틀린지 전혀 모르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도 없었기에 답답하고 막막해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TV를 틀다가 우연히 한국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발견했다.

그 프로그램은 주 2회 10분씩 회화를 가르쳐줬다. "안녕하세요? 수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내용이었는데 아직 한글이 익숙하지 않은 나에게 굉장히 어렵고 속도가 너무 빨라서 배우기 쉽지 않았다. 화면을 보고 따라 쓰려고 해도 단어 한두 개밖에 쓰지 못했는데 이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곤 했다.

지금은 인터넷에서 다시보기나 다운로드가 가능하지만 그때는 TV로 시청하는 게 전부였다. 하루는 그 프로그램이 방송하는 날에 집이 정전되어 급하게 자전거를 타고 옆 동네의 모르는 집에 들어가서 "10분만 TV를 볼 수 있냐"고 사정한 적도 있었다. 그때 그 프로그램은 나에겐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H.O.T 오빠들의 노래 가사와 대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아무리 힘들더라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배운 덕에 그 프로그램의 퀴즈 코너에서 여러 번 상을 탔다. 같이 상을 탄 사람들 대부분은 한국어학과 학생이거나 한국기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로, 나만 학생이고 그 프로그램 외에 다른 곳에서는 한국어를 배운 적이 없었다. 그 이유로 그 프로그램에 초대받아 몇 번 출연하게 되었다. 그때 같이 출연한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홍보관님이 어린 학생인 데다 사정이 어려운 나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앞으로 한국어나 한국 문화를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대사관에 오라"고 하셨다. 그리고 'Dynamic Korea'라는 문구가 새겨진 모자와 티셔츠, 한국 소개 책자 등과 같은 많은 선물을 보내주셨다. 감동이었고, 그 후부터 내 앞에 또 다른 세상의 문이 열렸다.

열정을 갖고 포기만 하지 않으면 가는 데마다 항상 나를 도와주실 분이 계실 거라는 믿음을 가졌다. 과거에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는다. 그렇게 한국어에 대한 열정으로 시작해서 20년 후인 지금은 전문 통번역사로서 베트남 국가주석, 부총리, 국회의장, 장·차관, 주한 베트남대사, 고위급공직자, 기업 총수 등과 같은 귀빈과 동석해 통역하는 일을 하고 있다. 또 평범한 시청자가 아닌 연기자로서 한국 드라마에 좋아하는 배우들(조승우, 이하늬, 차태현, 정용화, 하지원 등)과 함께 출연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나 신기하다. 꿈과 같은 일들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오랫동안 곰곰이 생각해봤다. 이 모든 일은 바로 한국어에 대한 열정에서 시작된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김지윤 (Jiyun Kim Huong)

베트남 출신 귀화자로 법무부·법원·검찰청·대사관·난민 전문 베트남어 통번역사로 활동하고 있다.
JTBC <신성한, 이혼>, SBS <원더우먼> 등 다양한 드라마에 출연하며 연기자로도 활동 중이다.

전통에서 유래된 재미있는 관용어

영문을 모르다

"아기가 울다 웃다 갑자기 우는데… 왜 이러는지 영문을 모르겠네."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일어난 이유를 모를 때 주로 쓰는 말이다.

오늘날의 시·도청에 해당하는 감영(監營)은 조선시대 지방 8도에 파견된 관찰사(감사)가 머무르며 집무를 보던 관청인데, 이 감영의 출입문을 영문(營門)이라고 불렀다. 관찰사는 종2품 지방 장관으로서 도내의 행정·사법·군사를 총괄하는 등 지역 전반을 관리하는 총 책임자였다.

감영에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지만 영문은 관찰사와 같은 고위직 관리만 오갈 수 있는 문이어서 하급 관리나 일반인들은 이용할 수 없었고 감영 뒤쪽의 쪽문으로 다녔다고 한다. 관찰사 외에는 그 누구도 영문이 언제 열리고 닫히는지 알 수 없었고, 경호 문제 때문에 알아서도 안 되었다. '영문을 모른다'는 말은 이렇듯 영문이 언제 어떤 이유로 열릴지 아무도 모른다는 뜻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충격적인 상황에 놀라 얼굴이 굳은 사람을 보고 우스갯소리로 '나라 잃은 얼굴'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우리말에는 역사나 전통을 알아야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다수 있다. 오랜 옛날부터 전해 내려와 현재까지도 흔히 사용되고 있는 관용어를 알아본다.

바가지를 긁다

잔소리와 불평 등 듣기 싫은 말을 이르는 말이다. 박 열매를 잘라 속을 긁어내어 그릇 용도로 사용하는 바가지는 '긁다' 외에도 '차다', '쓰다' 등 다양한 관용 표현으로 활용된다.

'바가지를 긁다'는 말의 어원은 슬픈 역사에서 유래되었다. 1880년대 한반도에 콜레라가 돌아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당시 사람들은 병원에서 치료받는 대신 무속인을 불러 굿을 벌였다. 무속인은 전염병 귀신을 쫓아내려 상 위에 바가지를 올려놓고 박박 긁어댔다. 이 소리가 하도 시끄럽고 요란해 '듣기 싫은 소리'라는 의미가 생겼다가 나중에 듣기 싫은 소리 중 대표적인 '잔소리'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굳어졌다.

'바가지 차다'는 '깡통 찬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 거지가 옆구리에 박을 차고 다니던 모습에서 유래되었다. 반면 억울하게 손해 보았음을 뜻하는 '바가지 쓰다'의 어원에는 여러 설이 있지만, 정확한 유래는 알려지지 않았다.

대중문화 속 다양성과의 만남

OTT(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의 등장은 언어와 국경을 넘어 세계를 콘텐츠로 묶어주는 역할을 했다. 수많은 콘텐츠 가운데 한국과 한국인을 중심으로 문화 속 다양성의 의미를 되새겨본 드라마를 살펴본다.

김씨네 편의점

캐나다 토론토를 배경으로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국계 이민자 가족의 일상을 담은 시트콤이다. 2016년 캐나다 CBC 방송국에서 제작을 시작해 시즌 5까지 제작됐다. 50대 부부와 20대 남매 네 명의 가족 구성원이 중심이 되어 펼쳐지는 이야기로, 동명의 연극이 먼저 인기를 얻은 후 시리즈물로 만들어졌다.

부부와 딸 역할을 맡은 배우가 한국계 캐나다인으로, 극중에서 '아빠', '엄마'와 같은 한국어 호칭을 사용하고 한국 문화와 한국 가정의 모습을 전반적으로 잘 담아내 외국인은 신선함을, 한국인은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 아들 정 역할의 시무 리우는 마블 영화 <샹치와 텐 링즈의 전설>에 출연해 익숙한 배우다.

이민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족 간의 세대·문화적 갈등을 현실적으로 그려낸 한편 이를 무겁지 않고 유쾌하게 풀어내 전 세대의 공감을 자아낸다.

회차 시즌 5(각 13부작)
출연 폴 선형 리, 진 윤, 앤드리아 방, 시무 리우 外

내일 지구가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서울의 한 대학교 국제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그린 시트콤이다. 한국, 미국, 태국, 호주, 스웨덴, 트리니다드 토바고 등 세계 각지에서 모인 학생들의 일상과 청춘, 사랑, 우정 이야기를 담고 있다.
공부와 아르바이트로 쉴 틈 없이 바빠 "지구가 망해버렸으면 좋겠다"고 자조하는 학생, 한국계 입양아로서 모국을 알고 싶어 유학 온 학생, 뼛속까지 한국식 '꼰대' 마인드를 고수하는 학생, K-콘텐츠에 빠져 유학 온 학생, 연애하느라 공부는 뒷전인 학생, 통학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친구 방에 기생하는 학생, 기숙사 내의 불미스러운 사건을 숨기려 하는 교수까지 다양한 사연을 지닌 인물들이 거주하는 기숙사는 하루도 바람 잘 날 없고 황당한 일이 가득하지만, 청춘을 겪어본 이들이라면 누구나 몰입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회차 12부작
출연 박세완, 신현승, 최영재, 민니, 한현민 外

엑스오, 키티

한국계 소녀가 주인공인 인기 하이틴 영화 시리즈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의 번외작으로, 영화 주인공의 10대 여동생 키티가 주연으로 등장하는 하이틴 로맨스 드라마다. 미국에 살던 키티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교이자 장거리 연애 중인 남자친구가 다니는 한국의 국제학교로 전학 가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서울에 도착한 키티는 엄마의 흔적을 좇아 다양한 경험을 하며, 기쁨과 혼란 속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사랑과 우정을 쌓는다.
미국에서 제작한 작품이지만 한국을 배경으로 한 만큼 서울 시내 곳곳의 풍경이 아름답게 담겨있을 뿐만 아니라 추석, 한복, 한옥, 부채춤, K팝 등 다채로운 한국 문화를 만날 수 있다. 출생의 비밀, 재벌, 계약 연애 등 K-드라마의 '필수 법칙'과 같은 요소들을 곳곳에서 발견하는 재미도 있다.

회차 10부작
출연 애나 캐스카트, 최민영, 김지아, 이상헌 外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식을 만나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SNS 소식

#1

맞춤형 체류 길잡이
영문판 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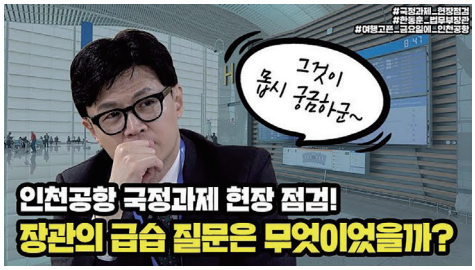
facebook

국내 체류·비자 관련 정보를 한곳에 담은 '맞춤형 체류 길잡이(비자 내비게이터)' 영문판을 전자책으로 만나보세요.

#2

인천공항 국정과제
현장 점검

YouTube



법무부장관이 인천공항을 방문한 이유는? 출입국심사 시스템과 긴급 대응 체계 점검 등이 이뤄진 국정과제 점검 현장을 따라가봅니다.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immigration.kr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SNS 채널을 구독하고,영상, 카드뉴스 등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행복한 하루를 만드는 칭찬의 힘!

사소하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미소 한번은 누군가의 하루를 행복하게 만든다.
진심이 담긴 친절과 배려로 민원인들의 칭찬 대상자가 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직원을 소개한다.

배려 덕에 따뜻함을 느꼈어요

칭찬합시다

지난해 국적회복 신청차 사무소에 방문했는데 임지영 담당자님이 여러 차례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담당자님처럼 배려심 깊은 젊은 공무원이 일하는 대한민국에 돌아와서 다시 살게 된 것이 참 기쁩니다.

김OO 씨

"국적 업무를 담당하는데 부모님 연배와 비슷한 65세 이상 국적회복 신청자들이 많아 부모님을 대하듯 임하고 있습니다. 칭찬해주신 어르신께서 외국인이 아닌 국민으로서 연락주신다는 약속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임지영 주무관

친절한 담당자님 응원합니다

칭찬합시다

역귀화해서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하러 갔는데 생각보다 복잡해서 어려웠지만 이소원 담당자님이 끝까지 친절하고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정말 좋은 분을 만나서 서류 작업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길 응원합니다.

JIN OOOOO 씨

"외국인 체류관리 담당자 이소원입니다. 저를 특정해서 말씀해주셨지만 체류 창구 직원들 모두가 도와주셨습니다. 칭찬해주신 민원인 분의 마음을 기억하며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이소원 주무관

공존 공감

Korea Immigration
Service Magazine

2023 SUMMER
Vol.64

EVENT #1

독자 의견

2023년 <공존> 여름호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재미있는 콘텐츠, 유용한 정보, 아쉬웠던 점 모두 좋습니다. <공존>은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참여 기간 2023년 8월 1일(화) ~ 8월 16일(수)

참여 방법
1.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페이스북 계정 or 유튜브 계정을 팔로우(구독)!
2. 페이스북 공존 이벤트 게시글 or 유튜브 〈공존〉 티저영상 게시물에 '좋아요'
3.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경품 이벤트 독자 의견을 주신 분들 중 10명을 선정해 뚜레쥬르 교환권(2만 원)을 드립니다.

당첨자 발표 2023년 8월 21일(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당첨 여부를 확인하세요!

EVENT #2

퀴즈 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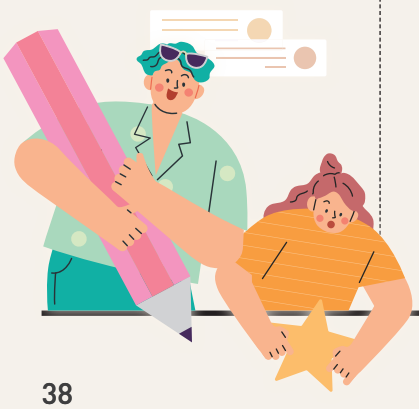
QR코드를 스캔해 퀴즈 정답을 맞혀주세요. 추첨을 통해 5명에게 스타벅스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립니다.

Q.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일원(나주시 및 함평군 등 11개 군)의 출입국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전라남·북도 관할 난민 거점사무소로서 난민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출입국·외국인관서는 어디일까요?

①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②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③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④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

참여 방법 QR코드 스캔
정답 마감 2023년 8월 16일(수)
당첨자 발표 2023년 8월 21일(월) 당첨자 개별 통보

빠르고 간편한 독자퀴즈 참여 방법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어서 <공존>에 관한 독자 의견과 퀴즈 정답을 남기면 참여 완료!



2023. 1. 1.부터 7세~16세

등록외국인(국내거소신고자 포함)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확대 시행

Starting from January 1, 2023, registered foreigners (including those who reported domestic residence) between ages 7 and 16 are eligible to use SeS (Smart Entry Service)

17세 이상 등록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신청 시 등록한 지문 정보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가능

Registered foreigners who are 17 years old or above can use SeS with the fingerprint data that was registered upon applying for the Residence Card

7~16세 아동은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사전등록 필요

Children between the ages 7 and 16 need to register prior to using SeS

여권이 바뀌면 여권변경 신고 필요!

Report change of passport if any changes are made!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다면? QR 코드를 스캔해보세요!

Scan the QR code to find out more!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